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

익산시, 특별전시장 무료 관람 등 다양한 이벤트 풍성

형형색색 국화로 물들인 '제19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지난 21일 개막했다.

이번 축제는 '국화향으로 만나는 자연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달 30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되며, 축제기간 이후에도 11월 13일까지 전시기간을 연장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변행사로 2022 ~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특별전시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시장을 중심으로 웰컴포토존, 국화향 기정원, 친환경페마존으로 연출했다. 특별전시장에는 백제왕도문, 보석 빛

조형물, 생명나무 빛조형물 등 대형 조형물을 전시해 웅장하고 화려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지역예술가가 참여하는 정크아트존은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코스가 될 것이다.

975㎡ 규모의 실내전시장에는 다룬대작, 현대, 입국 등 500여점의 품격 높은 국화작품과 전북농업기술원에서 화훼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개발한 국화 신제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분재전시관에는 국화분재연구회 전문가님과 일반회원님 출품한 목? 석 부작, 현대작, 연근작 등 200여점의 다양한 국화 분재작품이 전시되었다. 분재작품은 국화분재연구회원들이 1년 동안 재배한 것으로 20일 분재경진대회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품 13점(농촌진흥청장상, 도지사상, 익산시장상 등)도 함께 전시되어 품격을 높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회참여의 장을 열어간다.

청소년 다양한 목소리 담는다

익산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논의

익산시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회참여의 장을 열어간다.

시는 익산시의회, 청소년지도자, 종사자 및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 2022 익산시 청소년 정책포럼을 지난 2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다.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작년 이어 올해 2번째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했다.

포럼에서 익산시청소년연합회 정예진 회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한 익산시청소년의회 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조직 활동에 참여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내용과 현실의 한계점,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여 참가한 청소년지도자 및 종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김현우 부장은 '청소년 자치활동과 참여활동의

연대와 향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자치 및 참여 기구 조직들을 연대하는 익산시 청소년연합회, 익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익산시 청소년의회 역할구분과 권한 강화 및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회와 같은 일반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와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윤주 연구원은 '청소년 시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공존과 협력방안'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은 '입법부가 생각하는 청소년의회의 추진방향'을 여성청소년과 최영숙 계장은 '익산시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에 따른 청소년의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부 토론에서는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 김운근 회장(익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사회로 익산시 청소년의회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7일부터 15일간 제250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와 현장방문, 주요업무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6건 조례안 중 원안가결 35건, 수정가결 7건, 보류 3건, 부결 1건을 의결했다.

특히 2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과 시장현안에 대한 한정봉·서은식·양세웅·김경구·설경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원광대·자연식물원 대학병원 있는 나눔길 조성

익산시가 원광대학교병원과 자연식물원, 원광대학교캠퍼스를 잇는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한다.

시는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14개소 중 전국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장애 나눔길 사업은 보행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요철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행약자에게 차별 없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원광대학교병원~자연식물원 1.6km 구간과 원광대학교병원~원광대학교캠퍼스 2.4km 구간을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해 순환형으로 연결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미정, 군산시 신임 부시장 취임

취임식 생략·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참석... 취임 첫날부터 바빠진 행보

김미정 전 전북도 지리행정국장이 21일 군산시 신임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김 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하고 곧바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

한 전직원 특강 참석 및 공무원 노조 방문 등 공식 일정을 시작으로 취임 첫날부터 바빠진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미정 부시장은 "자립형 순환경제 구축, 현대중공업 재가동 등 도내 가장 역동적인 도시 군산시에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역식을 탈피한 수평적 소통 리더십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시장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주 출신인 김 부시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도 문화예술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책기획과장 및 자치행정국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폭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산=김판곤 기자

일제징용 김옥순 할머니, 군산 고향품에 안겨

일제 강점기 일본군수업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고향인 군산에서 마음의 안식을 취하게 됐다.

김 할머니는 지난 16일 새벽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했으며 1929년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5년 4월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살아생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머니는 가해자인 전범기업 후지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

김 할머니는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고 21일 고향인 군산에 내려와 순화원 추모 2관에 안치된다.

시 관계자는 "평소 고인의 말씀처럼 돌아가셔서 군산에 돌아오신 만큼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조례에 따르면 군산 순화원은 군산시민이 아니면 유해를 안치할 수 없지만 강입준 군산시장이 조례에



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예외규정을 들어 유해 안치할 수 있지만 강입준 군산시장이 조례에

익산 교도소 세트장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익산시가 할로윈을 맞아 국내 최초 교도소에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익산시 상당면 교도소세트장에서 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포 실감 콘텐츠와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오감 콘텐츠를 접목한 최첨단 기술로 구현되는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다.

21일 개막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익산시의회 최중영 의장 및 시의원,

전라북도 최창석 혁신성장정책과장 등 관계 부처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태범 본부장, 전북테크노파크 최상호 디지털융합센터장,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 한국콘텐츠연구원 유재형 남부본부장 등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주관·참여기관이 참석한다.

첫날인 21일 구독자 58만여명인 국내 최대 유튜브 공포채널 크리에이터 고스탠더 윤시원 의 행사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개막식을 시작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